Jeju 제주특별자치도	보도자료	2026. 11. 1.(일) **0시 이후**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	김수미	☎ 760-7601
		업무담당자	양주혁	☎ 760-7623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파종은 한 번에, 주행은 반듯하게…농작업 부담 줄인다

- 복합파종기·자동조향장치 활용…녹두에 정밀 파종 기술 적용 -

- 작업시간 64%·투입노동량 88% 감소, 시간당 작업면적 2.8배 확대 -

❑ **녹두 파종에 복합파종기와 자동조향장치를 활용한 결과 투입 노동량이 88% 줄어, 정밀 기계파종이 작업 효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**

❑ **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**(원장 김태균)**은 올해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녹두 재배농가 1곳에 장비를 보급하고, 기존 작업 방식과 정밀 기계파종 방식의 작업 효율을 비교·분석했다.**

❑ **기존에는 밭을 갈고 이랑*을 만든 다음 테이핑 종자**를 파종하고 제초제를 따로 뿌렸지만, 복합파종기를 쓰면 밭 갈기와 파종, 제초제 살포를 한 번에 할 수 있다.**

* 이랑: 작물을 심기 위해 밭의 흙을 길게 높여 만든 부분

** 테이핑 종자: 물에 녹는 테이프에 씨앗을 일정한 간격으로 붙여, 전용 파종기로 쉽고 고르게 심을 수 있게 한 것

○ 자동조향장치는 고정밀 위성위치정보(RTK-GPS)를 바탕으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 농기계 방향을 자동으로 맞춰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, 이랑 간격과 파종 정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.

❑ **시범농가에서 두 방식을 비교한 결과, 밭 갈기부터 제초제 살포까지 걸리는 시간은 10a당 1.1시간에서 0.4시간으로 64% 줄**

었다.

○ 작업인원도 3명에서 1명으로 줄어 작업시간과 인원을 함께 반영한 투입노동량은 88% 감소했고, 같은 시간에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은 2.8배 늘었다.

○ 시범농가는 기존에는 곧게 가는지와 작업 간격을 확인하려고 앞뒤를 계속 살피며 방향을 맞춰야 했지만, 자동조향장치 도입 뒤 운전 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답했다. 이랑 사이 빈 공간이 줄어 같은 밭에서 파종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.

❑ **농업기술원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의 기계 활용을 지원하고, 지역 여건에 맞는 녹두 기계화 재배기술을 보완한다.**

❑ **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이번 시범사업으로 녹두 파종작업의 기계화 가능성과 현장 적용 효과를 확인했다”며 “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영농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기계화 재배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**